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김현선**

〈목 차〉

머리말

- I. 편지를 통해 동학의 소식을 듣다
- II. 시사(時事)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다
- III. 8일 간의 여정을 일기로 남기다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

* 이 논문은 2024년 6월 27~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2024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토론과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토론자와 심사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로

도서관 소장) 중 ‘동학농민혁명’ 활동 시기의 자운(紫雲) 이증구(李中久)가 수집하고 남긴 자료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운 이증구는 여주(驪州) 이씨(李氏) 경주파(慶州派)로, 그의 12대 조는 동방 18현의 한 분인 회재(晦齋) 이언직(李彦迪, 1491~1553)이다. 이증구는 관직 생활을 하던 중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조선 내 청일의 군사 파병, 중앙의 급직적인 변혁이 일렁이던 시기를 지켜보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에는 이 시기 이증구를 중심으로 한 간찰(편지)류,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의 사본(寫本), 일기(日記) 등의 고문서들이 확인된다. 즉, 이상의 자료를 검토한다면 이증구의 시선으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찰(편지)류에서는 이증구의 친족과 지인들이 이증구에게 안부와 동학과 조정의 형세를 묻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관직에 있던 이증구가 그 당시 어떤 점을 관심에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기에서는 이증구가 고향으로 가는 8일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길 위에서 이증구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낸다.

아쉬운 점은 이증구가 받은 편지, 이증구가 쓴 일기, 이증구가 필사하거나 모은 자료들이 주를 이루게 되어 그의 현실 인식과 대응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중 이증구와 해당 시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주제어 : 자운 이증구,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머리말

19세기 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여파는 조선의 대내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흐름을 불러왔고, 외부적으로는 청과 일본의 갈등을 심화시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더욱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동아시아 정세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책봉관계는 종결되고, 조선을 향한 일본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말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판도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조선 말기 관리이자 유교 지식인이던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 1851~1925)가 모으고, 남긴 기록들은 이처럼 혼란했던 시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자운 이중구는 여주(驪州) 이씨(李氏) 경주파(慶州派)로, 그의 12대 조는 동방 18현의 한 분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다. 그의 조부는 이재립(李在立), 부친은 이능덕(李能德, 1826~1861)이며 아들은 이석일(李錫日), 손자는 이인원(李寅源, 1923~?)이다. 이중구를 중심으로 5대에 걸쳐 산출된 여주 이씨 가문의 수많은 양의 고문서(이하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가 전해지며, 현재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간찰(簡札), 소장(疏狀), 명문(明文), 시문(詩文)류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 총 12,000여점이 소장되어 있어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민간생활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¹⁾ 근래에는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중 8,000여점의 문서들을 탈초 및 해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²⁾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의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 시기와 관련된 기록의 자료들이 일부 확인된다.

자운 이중구는 조정에서 머물며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조선 내 청일의 군사 파병, 중앙의 급속적인 변혁이 일렁이던 시기를 지켜보던 중,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중구는 1888년(고종 25) 식년시(式年試) 병과에 급제하였고,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를 거쳐 1894년(고종 31) 홍문관(弘文館) 부교리겸서학교수(副校理兼西學教授)에 제수되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관직을 내려두고 고향인 경주 양동마을로 향한 것이다.³⁾ 그렇지만 이중구가 당시 국가 현안에 관

1) 이재령, 2021, 「慶州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의 정리와 성과」, 『東洋學』 83, 116쪽.

2)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 생활사 자료 DB 구축-경주지역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5년간 총 12,000여점 중 8,000여점의 문서들을 탈초 및 해제하였다.

심을 두지 않고, 그저 혼란을 피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이중구가 친족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관직 생활 중 중앙에서 수집한 정보, 고향으로 돌아가며 작성한 8일 간의 일기에는 당시 이중구가 마주한 장면들과 관심을 둔 지점들이 모두 반영되어있다. 즉,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내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생산된 자료를 통해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조선 말기 관료로서 중앙에 머물던 이중구가 마주했던 당대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⁴⁾

이에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 시기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생산된 자료 일부를 소개하며, 그의 시선을 따라 이중구가 마주하였을 현장을 바라보고자 한다. 자료는 유형에 따라 간찰(편지)류,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의 사본(寫本), 일기(日記)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⁵⁾ 간찰(편지류)는 이중구가 그의 친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의 주변인들의 생각과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대개 이중구가 관직 중에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중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구가 직접 남긴 일기를 살펴봄으로써, 고향으로 가는 여정 중 이중구가 겪은 일과 그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은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던 이중구의 시선을 보여주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자료를 소개하는 해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를 넘어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자료의 분석과 역사적 배경과의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추후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하

3) 김우진, 2024,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 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70쪽.

4) 이중구가 당시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관찰자적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5) 이 글의 일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며, 먼저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로부터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지닌 연구들이 파생되길 기대한다.

I. 편지를 통해 동학의 소식을 듣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서로 간의 일상과 안부를 묻고, 상대방이 머무는 곳의 형세를 물으며, 여러 사안의 의견을 나누는 수많은 간찰, 즉 편지들이 존재한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공간적 상황에 따라 각자가 있는 곳의 정보를 전하고 혹은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편지에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전염병, 흉년 등과 같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중구가 그의 친족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속에는 동학의 형세를 묻거나, 혹은 관련된 소식을 묻고 전하는 편지가 일부 확인된다. 이중구가 받은 편지들 속에는 차차 퍼져 나가던 동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1. 1893년 동학의 기운을 묻다

1893년(고종 30) 3월, 4월 그리고 5월, 관직 생활을 하며 한성에서 체류 중이던 이중구는 고향에 있는 그의 친족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발신자들은 모두 이중구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학의 형세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안선오(安善五)가 돌아와서 형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먼저 베풀어주신 편지를 받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로 감사합니다. 봄이 끝나가니, 그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삼가 요즈음 객지 생활하시는 형의 안부는 연이어 신의 가호로 편안하시고, 긴 대낮 맑은 창가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오랜 객지 생활의 근심과 생각하고 있는 바의 일은 괴로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더욱 간절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오갑니다.

저는 아버지 병환이 늘 위중하시고 아이들도 번갈아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어 매우 마음 졸이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모시고 있는 것을 스스로 다행으로 여길 수는 없지만 숙부께서 병이 더하는 것은 면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도 한결같이 편안합니다.

홍년의 우환은 볼수록 눈에 가득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는데다가 거듭해서 마을에 전염병이 점점 유행하니 더욱이나 걱정이 적지 않으며, 동학(東學)이 들불처럼 번졌는데 중간에 과연 진정이 되어 가는지요. 이같은 부정한 학설은 홍수보다 심각한 것인데 우리의 도(道)가 혼란에 빠진 것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통탄스럽고 또 통탄스럽습니다. 한성은 과연 전염병이 깨끗해져서 혹 경계심은 없는지요. 역시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경상도 관찰사는 듣자니 벌써 새로 정해졌고 명성과 치적이 혁혁하여 자자한 소문을 미쳐 다 들을 수 없을 지경인데 신관(新官)은 과연 누가 되었는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사곡(沙谷)의 사돈어른도 크게 기대하던 끝에 끝내 희망이 좌절되니, 대단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중(和仲) 씨의 최근 객지 생활은 또한 어떠하며, 계남(溪南)에 사는 우리 위원(委員)인 내종(內從)과는 종종 함께 어울리는지요. 들을만한 소식은 듣는 대로 따라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손님으로 시끄러워서 우선 이만 줄입니다.

정(情)으로 살펴주십시오.

계사년(癸巳年, 1893) 3월 23일에 아우 최현식(崔鉉軾)은 두 손 모아 절합니다.

신성단(神聖丹) 다섯 개와 조곽(早藿) 1단을 보냅니다. 6)

이 편지는 1893년 3월 23일 최현식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로 이증

6)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2, 다운샘, 255~258쪽 번역문 인용; 『李中久家五代古文書』 E425.

구의 안부와 가족의 병환, 전염병과 동학 등의 우려를 담고 있다. 최현식은 오랜 기간 객지에 나가 있는 이증구의 근황과 건강을 걱정하여 이증구의 근심과 괴로움이 클 것을 걱정하고 가족들의 병환을 근심 하였다. 또한 흉년을 겪고 있는데 전염병까지 유행하며 걱정이 적지 않음을 전하였다. 최현식은 ‘동학’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게 진정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4월과 5월, 이증구에게 전달된 편지들에서도 이증구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먼저, 4월 이증구는 친족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4월 8일 이증구의 족제(族弟) 이은구(李殷久)는 이증구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지난번 편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달과 세월이 막아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편(人便)이 있어 편지를 보내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체(旅體, 이증구)의 만위(萬衛)와 함께 머무르는 두 족형(族兄)을 아직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한성의 흥역은 청정해졌는지요. …다만 남자가 되어서 40살이 되었어도 밖으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안으로는 몸에 온갖 행실이 결핍되니, 도리어 무뢰배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꼴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동요(東撓)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요. …가을에 한 번 찾아뵈려 마음은 있지만 어찌 미리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7)

이은구는 앞서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서 이증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증구를 그리워하고 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인편(人便)이 있어 글을 보낸다고 하며 한성[都下]에서 흥역의 기운은 어

7)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G018, “向書未一月以前者, 月阻歲阻, 較之可無, 想而因便, 懷仰尙切. …伏未審旅體萬衛, 同留兩族兄氏俱客, 都下疹氣向淨否. …而但身為男子, 倏忽及四十之年, 而外無一名於世, 內乏百行於身, 反不免無賴輩唇舌中出沒樣而已. …東撓更有聞查…秋來一晉, 心上含有, 豫何可必耶…”

떠한지를 몰았다. 이은구는 벼슬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말하면서
도, 자신은 나이 40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있어 매우 답답
하다 하였다. 또한 ‘동요(東撓)’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지를 묻고, 이증구
의 집에는 별다른 일이 없이 한결같이 편안한 상황임을 전달하였다.

4월 23일 한상원(韓商源)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의 협지에는 “듣기
로 동학의 무리가 지금 이미 흩어졌다고 합니다. 조야(朝野)의 경사스러
운 일이고 실로 무강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⁸⁾라며 동학이 흩어진 것
을 좋은 일로 생각하였다. 또한 5월 8일 이석정이 자신의 족속인 이증
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학이 물러나 흩어졌다고 이르니, 공사(公私)
의 큰 다행입니다”⁹⁾라 하며 마찬가지로 동학이 물러난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두 통의 편지 모두 동학이 물러난 상황을 안심하고 있었다.

다음 달 5월 5일 이증구의 족손(族孫) 이시원(李始源)이 족조(族祖)인
이증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인사드립니다. 정초(正初) 사곡(沙谷)을 통해 소식을 보냈는데, 반드시
뵙고 싶습니다. … 동학도들의 소요가 매우 위태롭고 두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엔 물러나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걱정이 없는지요. 이것을
알 수 없어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근심이나 진실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¹⁰⁾

이시원은 먼저 객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할아버지 이증구의 안부를
물었다. 또한 흥년과 한차례의 난리가 지나 보릿고개에 이르렀는데, 자
신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음을 전했다. 그리고 “동학도들의 소요가
매우 위태롭고 두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엔 물러나 흩어졌다고 들었습니

8) 『李中久家五代古文書』 H573, “…聞東學之黨, 今已散撤云. 朝野慶抃, 實爲無強遐福也.…”

9) 『李中久家五代古文書』 H578, “…東黨退散云, 公私之一大幸也.…”

10) 『李中久家五代古文書』 H586-1, 586-2 “稽顙. 正初沙谷起伴時付疏, 想必入覽矣. …
東騷聞甚危怖, 而近聞退散, 其果無慮耶. 是未可知. 而漆室之憂, 竊不自勝耳.…”

다. 과연 걱정이 없는지요. 이것을 알 수 없어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근심이나 진실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며 당시 동학교도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전하였다.

이중구가 지인과 친족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은 동요(東擾) 그리고 동소(東騷)라는 표현으로 동학교도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또 한성 내 흥역의 상황도 물었다. 이를 통해 경상도에 거주하던 이들이 동학교도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과 당시 1893년 초 전염병이 유행하며 흥작이 들었던 사회의 모습도 비추어볼 수 있었다.

이중구가 편지를 받은 시점을 고려하여 이 편지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890년 최시형의 교조신원운동 이후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 운동, 3월 보은집회 등 당시 동학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 각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4월 1일 고종의 율음이 내려진 후 동학교도들은 해산하였다. 편지가 쓰인 4월과 5월,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지방에까지 퍼졌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중구는 정성스레 답장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발신하였고,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중구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당시 이중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중구와 교류하고 있던 주변 인물들이 동학의 형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이중구가 그의 지인들과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조심스레 추측된다.

2. 1894년 혼란 속 이중구의 안부를 묻다

1894년(고종 31) 조선은 격동의 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고부민란에서 무장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그 영역을 확장해가며 조정을 긴장시켰다.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점차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청에 군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일본군도 군사를 파견하여 경복궁을 점령하는 등

조선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의 파장은 조선 내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판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 이증구가 받은 한 통의 편지는 당시 한성이 얼마나 급박한 모습이었는지를 상상케 한다.

1894년 이증구는 사종제(四從弟) 이매구(李邁久)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正甫, 이증구)에게. 변란의 가운데 서로 보지 못하고, 서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당일 재앙의 기운이 막 일어나서, 부득이 관의 여러 친구들과 이곳에 왔는데, 그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심히 염려되고 답답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고금에 있지 못하였던 변란입니다. 신민(臣民)이 된 자는 누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기내가 이미 거의 비었으니, 앉아서 기다려사는 안되니 문 밖으로 나가 잠시 피해 있는 것을 기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나라 군대가 모레쯤 들어온다고 하니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체(旅體)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묻습니다. 주인이 흑시라도 도피해서 가버리지 않았다면 음식을 이전처럼 제공하는지요. 걱정됩니다....”¹¹⁾

이매구는 변란의 상황으로 정신이 없어서 이증구에게 연락하지 못하였고, 좋지 않은 기운을 느껴 한성에서 자리를 피해 있다며 남아 있을 이증구를 걱정하였다. 당시 나라의 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기내(畿內)는 텅 비었고, 모레쯤 청나라 군사가 들어 온다고 들었다며 이증구의 안위를 거듭 걱정하였다. 편지를 보낸 날짜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매

11)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509. “正甫乎. 變亂之中, 不相面, 不相告. 當日禍色迫頭, 不得已與齋伴數三益, 轉至此處, 而未知君之行止之如何. 此心慮鬱, 當何如哉. 國事至於此境, 古今所未有之變也. 爲臣民者, 孰不憤惋, 然而畿內幾空. 君亦不可坐待, 期於出門外暫避, 如何. 清兵再明間入來云, 未知其真偽, 而事到此境, 豈可無事乎. 卽詢旅體連旺, 主人尙不避去, 而供饋如前耶....”

구가 당시 관직에 있으며 한성에 있었을 시점이며¹²⁾ 청병(淸兵)이 모레 온다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5월 4일 청국이 아산만 상륙하기 직전에 쓰였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이중구가 이매구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당시 한성의 상황이 급박하였으며, 관리들이 한성을 피해 나가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중구가 받은 편지 몇 통을 살펴보았다. 1893년 4월, 5월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이중구의 친족들은 이중구에게 편지를 보내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의 안부를 물으면서, 동학의 움직임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차 묻고, 또 동학이 해산되었음에 안심을 표하였다. 그러나 이중구가 일 년 뒤 받은 편지는 그간 조선의 급변한 정세를 파악해볼 수 있게 한다. 1894년 5월에 받은 편지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며, 이중구가 혼란스러운 한성에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이중구의 시각과 관점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의 생각과 당시의 복잡해진 모습을 읽어볼 수 있었다.

II. 시사(時事)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조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확인된다. 이는 관직에 있던 이중구가 수집한 자료들로 추정되며 당시의 시사(時事), 시세(時世)를 보여주는 문서와 정보들이 확인된다. 예를 들자면, 중앙으로 올라오는 상소문의 사본(寫本), 왕의 윤음과 교서, 관원 임명 명단,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이매구는 1893년 6월 20일 社稷 飮을 맡았고, 1894년 7월 5일 長鬚(포항)의 縣監으로 임명되었다.

해당 자료들의 내용을 본다면, 이증구가 당시 국가의 정사(政事) 그리고 형세(形勢)에 갖고 있던 관심의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증구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점, 갑오개혁, 일본의 조선 간섭 등 당시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 그가 모으고 남긴 자료를 통해 이증구의 시선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에 이증구가 수집한 정보와 옮겨 남긴 기록의 일부를 소개하고 그가 관심을 두고 바라본 당대의 급박하게 돌아가던 조정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1. 상소

이증구는 나라의 시사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글들을 모아두었다. 특히 각지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상소를 통해서 그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증구가 수집한 상소에는 동학을 비판하고 국가 형세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소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93년 2월 동학교도가 전라도감영에 정소(呈訴)한 글과 경기 방외유생 박제삼 등의 상소(上疏)¹³⁾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중 현재 가장 이른 시기로 확인되는 동학 관련 기록은 1893년 2월 10일 어느 동학교도가 전라도 감영에 올린 글을 포정사(布政司)에서 게시한 고시문이다. 동학교도들은 전주 감영에 정소하는 글을 올릴 뿐만 아니라 통문(通文) 4통을 함께 돌렸다. 소식이 널리 퍼지며 이를 비판하는 상소가 여러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가 경기 방외유생 박제삼 등이 올린 상소이다.

전라도감영에 정소한 글에는 전라감사 이경직에게 동학을 공인해 줄

1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10, B123;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 2월 25일.

것과 동학교도들에 대한 지방관과 토호들이 부당한 주구(誅求)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 왜적(倭賊)을 물리치는데 나라와 힘을 합치겠다고, 그들이 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박제삼 등의 유생들은 동학교도들이 이단의 학설을 빙자하며 속으로 는 반역을 음모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결가지만 잘라내는 조치를 처하여 다른 재난을 가져오게 해서는 되지 않기에 그들을 처단하거나 성토하는 일에 모든 조치를 잠깐이라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

2) 1893년 8월 21일 이견창과 권봉희가 올린 두 상소¹⁴⁾

1893년 8월 21일 부호군(副護軍) 이견창(李建昌)과 전(前) 사간(司諫) 권봉희(權鳳熙)가 각각 상소를 올렸다. 두 상소 모두 동학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생각한 대응책을 함께 전달하였다.

이견창의 상소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양호에서 간사한 무리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들을 처단할 것, 둘째, 한성과 지방의 직속 부대 군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것, 셋째, 나라의 경비는 백성에게 나오는 것인데 이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 것, 넷째, 관리를 통해 백성들이 안정화될 수 있으니 좋은 찰리사(察理使)나 감사를 잘 택할 것 등이다. 특히나 이견창은 백성이 무리를 이루는 경우 국법으로 반드시 처단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동학교도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권봉희의 상소는 당시 조선 조정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관리들은 이를 문제 삼아 벌을 주는 조치가 있길 바라였다. 권봉희는 상소에서

1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04-105, B106;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 8월 21일.

현재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이교가 횡행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그는 시폐(時弊)를 개선하기 위한 7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말미에는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고한 고사(故事)를 인용하며, 임금의 태갑과 같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권봉희의 상소가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의 관리들은 그가 제시한 제안에는 실재가 없으며 나라를 기롱하고 조정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비판하였다.¹⁵⁾

3) 1894년에 올라온 세 건의 상소¹⁶⁾

1894년에 들어서며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세지고 영역은 확장되어 갔으며, 그 파급은 주변국과의 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상응하듯 1894년에 올라온 상소들은 당시 문제의 원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동학이라 가리키었고 외국의 군사 파병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하였다.

1894년 5월 8일 부사과(副司果) 이설(李悛)은 국가의 위급한 사태를 병이 든 것으로 비유하고 그 치료약을 말하였다. 병의 원인은 동학의 무리로 이들을 난민의 도당이라 하였다. 방백, 수령들이 국가에 보답할 마음은 없고 자신들만 부유하게 할 생각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아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는 동학 무리의 유인에 많은 백성이 말려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동학의 확장세를 설명하고 그 문제의 시작이 조필영(趙弼永), 조병갑(趙秉甲)이라 지적하였다. 이설은 이 문제를 해결할 5가지의 조목을 제시하였는데, 여론을 위로하고, 진휼 행정을 하고, 궁중의 출입을 엄정히 하여 간사함을 막으며, 언로를 개방하여 여러 정책을 받아들이고 원병의 도움에 의지하여 무비(武備)를 허술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⁷⁾

15) 『承政院日記』 1893년 8월 21일.

16)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22, B121, B120.

17) 『承政院日記』 1894년 5월 8일. 이최영은 이설이 軍衛의 신분으로 상소를 한 점과

6월 17일 부사과(副司果) 이최승(李最承)도 당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그는 백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청렴한 수령을 삼고, 경비를 줄여 진휼하고, 전쟁을 우려하여 무비를 강구 해야 함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의 범망이 해이해져 수령이 탐욕스러워 민란이 일어나고, 서학을 금하지 않으며, 동학이 일어나고, 환곡이 텅 비어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문제를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긴급하지 않은 일을 없애고, 언로를 열어 유신들을 인접하여 고금의 치란을 논의해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¹⁸⁾

6월 23일 형조참의(刑曹參議) 이남규(李南珪)의 상소는 동학도와 일본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였다. 이남규는 먼저 동학도들의 문제와 백성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都城)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일의 문제와 국가에 외국 원병을 들이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나라가 군정과 무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2.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

관료로서 중앙에 근무하고 있던 이중구는 국왕의 율음과 교서 그리고 관직 임명, 관제의 개정안 등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들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중구가 중앙의 상황과 형세의 흐름을 읽어가는데 뒷받침이 되던 중요한 자료들이라 생각된다.

家僮이 상소를 올린 것이 모두 禁令에 관계된다며 소장을 엄하게 推考해야 한다고 하였다.

- 18) 『承政院日記』 1894년 6월 17일. 정항조는 이최승이 軍衛의 신분으로 상소를 한 점과 家僮이 상소를 올린 것이 모두 禁令에 관계되니 소장을 엄하게 推考해야 한다고 하였다.

1) 국왕의 운음(綸音)과 교서(敎書)¹⁹⁾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1894년을 전후한 때 고종의 운음, 교서, 전교를 옮겨 적은 문서 몇 건이 확인된다. 그중 1893년 4월 고종이 양호(兩湖)에 내린 운음과 1894년 7월 경장(更張)의 뜻을 담은 교서는 주목할만하다.

1893년 4월 1일 고종은 동학의 형세가 가속화되자 양호에 운음을 내려 백성들을 타이르고자 하였다. 고종은 열성조(列聖朝)가 일찍이 정사를 빛내고 유학을 장려하여 나라의 풍속이 옳을 길로 갔으며, 자신이 이를 잇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풍속이 야박해져 추향(趨向)이 달라지므로, 허망한 무리들이 방자한 술책으로 세상을 속이고 현혹하여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또한 ‘큰 의리를 제창[倡義]’이라 써놓고는 혹 통문(通文)을 내기도 하고 혹은 방(榜)을 붙여 인심을 선동함을 비판하며, 이들이 큰 의를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난을 앞장선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세는 자신[고종]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해서이며, 탐오한 아전과 수령들이 백성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니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하였다. 마지막에는 행호군(行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할 것을 명하였다.

고종은 선조들이 국가를 잘 닦아왔기에 자신이 이를 잇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이 이상해져서 동학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이에 현혹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고을과 수령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을 벌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1894년 7월 20일 고종이 국가 초기의 법도가 해이해져 경장(更張)을

19)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529, K818; 『高宗實錄』 권30, 고종 30(1893) 4월 1일; 『承政院日記』 고종 31(1894) 7월 20일.

하겠다는 교서를 내렸다. 이 교서에서는 근래 온갖 법도가 점차 해이해져서 체계가 전혀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형세가 쇠약해져서 옛 법을 참고하고 각국의 좋은 규례를 참고할 것과 직제(職制)를 정비할 것을 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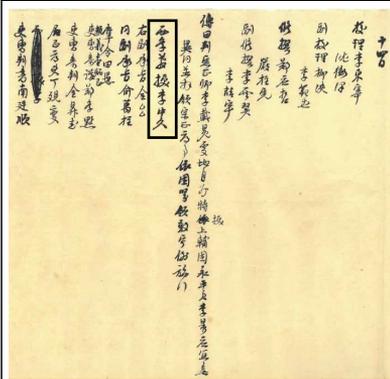
2) 관직 임명 명단과 관제의 개정안²⁰⁾

이중구는 관직 임명 명단 문서와 새롭게 개편된 국가 관제(官制)의 기록을 모았다. 특히 6월 초 고종의 전교(傳敎)를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의 조정의 정사, 관제의 개편, 관직 임명안의 기록들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는 이중구가 국가의 운영 상황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관직과 관련하여서라도 이중구는 관원 임명에 관심을 가졌다. 이중구는 1894년에는 부사과(副司果)의 직임이었고 7월 9일 고종의 전교에 따라 부교리에 제수되었다. 며칠 뒤 14일 이중구가 서학교수에 임명될 때의 임명 명단도 확인된다.²¹⁾ 그런데 16일 이중구는 병이 있다고 하며 다시 체직을 청하였는데, 고종은 이를 허락했다. 이중구가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을 떠나기 전 관리 임명에 거론되었던 상황인 만큼, 그는 관직 임명과 관제의 개정 등을 주시하며 조정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고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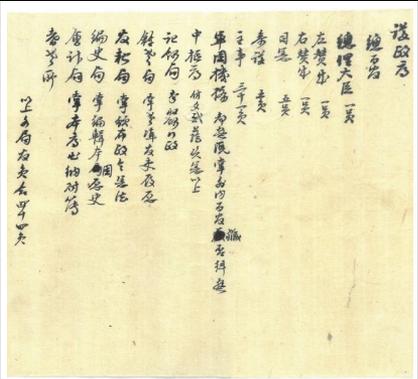
20) 관원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808, K809, K810, K811, K812, K813, K814 / K817, K816. 관제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K819, K820, K822, K823, K824, K825, K826, K827. 한 지면에 연속적으로 쓰여있으나, 자료의 탈초 및 해제의 편의를 위해서 날짜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1)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814.



<사진 1>

1894년 7월 14일 관직 임명 명단(K814)



<사진 2>

의정부의 직제(K820)

3. 외국과의 문제

19세기 말 조선이 확장된 국제질서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나라와 교류하였다. 또한 외국 공사와 영사들이 조선에 머물렀고 그들은 회의를 통해 여러 외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외교 업무 처리 회의 혹은 외국 공사가 올린 문서를 옮긴 기록도 보이며, 이증구가 당시 외국과의 문제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여기서 소개할 자료는 1894년 조선 주재 각국 공사와 영사의 회동 담론 초고와 일본 공사가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²²⁾가 올린 글이다.

22) 오토리 게이스케(大鳥 圭介, 1833~1911)는 1889년 주창국 특명전권공사를 지냈는데, 1893년 조선의 공사도 겸임하게 되어 6월 조선에 부임하였고, 10월 11일 공사에서 해임되었다.

1) 회의록²³⁾

1894년 6월 14일 조선의 주재로 각국의 공사와 영사들이 회동한 모임의 초고를 통해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회의록은 당시 조선과 외국 공·영사들 간의 회의 장면을 생생히 살필 수 있으며, 회의 주된 논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도 보여준다.

이날의 회의에는 외무독판 조병직(趙秉稷)의 주재하에 일본 공사, 러시아 공사, 프랑스 공사, 독일 영사, 영국 영사가 참여하였다. 모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진행되었던 회의에서 일본 공사의 불참으로 생긴 외국 공사들의 위치(位次) 문제였다. 6월 8일의 회의에서 수석(首席)은 본래 일본 공사의 자리였으나, 일본 공사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며 미국 공사가 수석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공문서상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수석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본 공사가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문서를 옮겨 적으며 발생한 오류임을 밝히며 정리되었는데, 일본 공사는 공문서상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일본의 군사가 한성 내로 들어온 것에 관한 논의이다. 영국 영사는 어느 나라인지를 막론하고 조선 정부의 허락이 없이 외국 군사가 한양 내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 공사는 임오년의 조약[제물포조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공사와 독일 영사도 일본의 군사를 철수해줄기를 청하자 일본 공사는 자신에게 군사를 철수시킬 권한은 없으며, 군사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하겠다고 하였다.²⁴⁾

회의록에서는 청일전쟁 직전, 한성 내 주재하던 외국 공·영사들 간 주고받은 대화들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각국의 가지고 있던 입장 또한

2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24.

24) 회의록의 전문의 원문과 번역문은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2, 다운샘, 17~27쪽 참고.

확인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 회의에서의 위치(位次)나 기타 관례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교적 현안을 두고 외국 공·영사 간의 오고 간 대화가 담긴 이 자료는 외교의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후 회의에 참석한 공사와 영사가 남긴 문서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2) 일본 공사(公使) 관련 문서²⁵⁾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조선의 왕실, 관리, 유생, 백성 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정의 관리와 지방의 유생들은 일본군의 원병 파견을 비판하고 또 경복궁 침입을 문제 삼으며, 일본의 동태에 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일본 공사가 제시하거나 국왕에게 올린 문서가 확인된다. 바로 6월 8일의 ‘내정개혁안[擬釐政內治庶政各條綱目]’과 6월 26일 고종에게 올린 문서이다.

일본의 공사는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의 국왕과 관리들을 만나 조선의 내정개혁을 제안하였다. 6월 8일 조선의 대신들은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를 만나 회담을 열었다. 이때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제안하는 ‘내정개혁안[擬釐政內治庶政各條綱目]’²⁶⁾을 제시하였다. 앞서 일본은 조선에 군사 파견 이후 청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조선에게 내정개혁의 추진을 지속해서 강요해왔다.

또 다른 문서로는 6월 26일 오토리 게이스케가 고종에게 올린 글이다.

25)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457, B125.

26)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등용한다.

제2조 재정을 정리하고 재원을 개발한다.

제3조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한다.

제4조 국내의 민란을 진압하고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비와 경찰을 설치한다.

제5조 교육제도를 확립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남쪽 백성들이 무지한 벌레 마냥 고집스레 교화를 거절하여 감히 관원에게 항명하고 한동안을 날뛰자 국가가 군사력을 발동하여 신속히 토벌하는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전쟁을 잊고 아침밥을 편안히 먹는 일이 쉽지 않음을 상기하시고 마침내 이웃 나라의 구원을 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일본)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일의 형편이 매우 중하다고 생각해 마침내 대항제 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사신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을 병 둘러싸고 주둔하여, 공사관과 상인(商人)을 스스로 막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신에게 명령하기를, 귀국 조정 대신과 회동하여 이 방법을 밝혀서 귀국 정부가 부강에 관한 실재 정책을 힘써 거행하도록 돕는다면 귀국의 유불리와 연계되는 우의를 마칠 수 있음이며, 보거(輔車)가 서로 의지하는 국면을 보전하여 지닐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²⁷⁾

오토리 게이스케는 당시 조선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백성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당시 일본의 조선 원병 파견과 경복궁 침입에 대한 사정을 말하였다. 또한 조선과 일본 양국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야 함을 전했다. 이는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의 내정에 깊게 간여하고 간섭하고자 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전해지는 고문서들을 통해, 당시 그가 관심갖고 있던 국가의 현안과 정세를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중구는 당시 정사 운영과 국가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민한 태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중구는 한성에서 관직을 맡고 1894년 7월 24일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조정, 즉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소식을 필사하여 남겨두었다. 동학을 비난하는 상소문, 고종의 윤음과 전교, 국가 정사와 관련된 사안, 관리 임명안, 관제의 개정안, 외국 공·영사들의 회동 초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27)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2, 다운샘, 28~33쪽.

이 자료들의 일자를 확인해보면 7월 26일 이증구가 한성을 떠나기 전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이증구가 수집한 자료들은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조선의 상황을 보여준다. 5월 초 청의 군사 파병 이후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파견한 후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여 개혁을 부추기고 일본 군사의 철병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고수하였다. 6월 8일 일본 공사가 조선에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고, 6월 14일에 외국 공·영사들의 회의에서는 조선 내 일본 군사 파견 문제를 논의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내정개혁 제안과는 별개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하자, 25일 군국기무처가 설립되어 이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며 조정 내에는 관제의 개편이 진행되고 관리들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이같이 급박하게 움직이던 1894년의 모습을 이증구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표 1〉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시기 관련 문서 목록(일자 순)

문서번호	일자(음력)	내용(『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해제 참고)
B110	1893.2.10	어느 동학교도가 감영에 올린 글
B101	1893.2.18 1893.2.21	관학유생 이건중 등이 올린 상소의 사본 대사간 윤길구가 올린 상소의 사본
B123	1893.2.25	B110에 대한 박제삼 등의 상소의 사본
K529	1893.4.1	고종의 윤음(동학농민에 관한)
G018	1893.4.8	族弟 李殷久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
H573	1893.4.23	韓商源이 이증구에게 보낸 夾紙
H586-1, 586-2	1893.5.5	족손(族孫) 이시원(李始源)이 족조(族祖)인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
H578	1893.5.8	이석정이 족속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
B104, B105	1893.8.21	이건창이 동학에 대해 성토했던 글의 사본
B106	1893.8.21	전 사간 권봉희의 시폐(時弊)와 7가지 제안의 사본
B122	1894.5.8	이설이 올린 상소의 사본
B456	1894.6.6	고종의 전교의 사본
K586	1894.6.	『속음청사』 내용을 抄錄 ²⁸⁾

문서번호	일자(음력)	내용(『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해제 참고)
B457	1894.6.8	일본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등사
B124	1894.6.14	조병직과 외국공사들의 회동 담화 초고
B121	1894.6.17	이최승의 상소의 사본
K806	1894.6.22	고종이 내린 전교
K807	1894.6.23	고종이 내린 전교
B120	1894.6.23	형조참의 이남규가 올린 상소의 사본
K808	1894.6.24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09	1894.6.25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B125	1894.6.26	일본사신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 정부에 올린 외교문서
K819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궁내부의 직제
K820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의정부의 직제
K821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내무아문의 직제
K822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외무아문의 직제
K823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탁지아문의 직제
K824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군무아문의 직제
K825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공무아문의 직제
K826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학무아문의 직제
K827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농상아문의 직제
B455	1894.6.28	군국기무처가 올린 의안의 등본
B102	1894.6.29 1894.7.2	군국기무처가 올린 의안의 사본
K810	1894.7.2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1	1894.7.6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2	1894.7.9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3	1894.7.11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문서번호	일자(음력)	내용(『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해제 참고)
K814	1894.7.14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03	1894.7.15	정사와 관련된 기록
K816	1894.7.16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7	1894.7.17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8	1894.7.20	경장에 대한 내용
K476	1894.7.24 ~8.1.	이중구가 쓴 8일 간의 일기

Ⅲ. 8일 간의 여정을 일기로 남기다

‘동학농민혁명’과 이에 대응하던 조선 조정의 혼란과 급변, 청과 일본의 군사 파견과 양국 간의 긴장을 목도한 이중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여정(旅程) 중 8일 간의 일정을 일기에 남겼고, 이중구가 겪은 일과 그의 감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²⁹⁾ 일기는 이중구가 한성을 떠나기 직전인 7월 24일에 시작하여 충주, 단양, 죽령을 지나 유점(鑛店)에 이른 8월 1일까지만 남아 있다. 이 일기에서 이중구가 고향에 도착한 기록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8일 간 이중구가 보고 겪은 바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기는 앞서 소개한 자료들과는 다르게 이중구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남겼다. 자료상에서 일기의 작성자가 이중구라는 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7월 16일 이중구가 병으로 인해서학교수직에서 체직되기를 원한다는 기사와³⁰⁾ 8일 간의 일기가 7월

28) 김윤식의 『속음청사』 6월의 기록에는 일본이 제시하였던 개혁안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주된 부분들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29) 일기의 원문과 번역문은 부록 확인.

30) 『承政院日記』 1894년 7월 16일, “尹吉炳, 以吏曹言啓曰, 中學教授金駿漢, 東學教授李範世, 南學教授趙鎭萬, 西學教授李中久, 俱以身病, 呈狀乞遞, 改差, 何如? 傳曰, 允.”

24일에 시작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일기가 이증구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증구가 관직에서 체직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이증구가 쓴 8일 간의 일기

일자	내용	출처
1894.7.9	副司果 이증구 副校理에 除授	『承政院日記』
1894.7.14	이증구 西學教授에 除授	『承政院日記』
1894.7.16	이증구가 병이 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한 것을 허락	『承政院日記』
1894.7.24	지인과 작별 인사를 함. 관내 왜병이 물러나기 시작했으나 궐문 밖 파수꾼 몇 명이 남아있음.	『李中久家 五代古文書』 K476
1894.7.25	고종의 탄신일이나 조정에서 참석한 자가 많지 않음을 탄식함. 지인과 작별 인사를 함.	
1894.7.26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여정을 출발함. 江頭에 왜병 무리가 지키며 轎內를 점검함. 末竹店에서 묵음	
1894.7.27	新院店, 용인읍을 지나 別味店에서 묵음. 대구진영의 使畵를 불러 한 진사에게 편지를 보냄.	
1894.7.28	한성을 떠난지 수일째로 몸은 남으로 가나, 마음은 북에 남아있음. 裴甘店에 들렸으며, 교리 김필현과 만남. 碑立店을 들러 昆池院에 이름.	
1894.7.29	忠州府에 도착하여 둘러봄. 간신히 묵을 곳을 찾았으나 불편히 밤을 보냄.	
1894.7.30	여정 중 東匪의 소란을 전해 듣고 두려워 함. 휴식 중 東匪들이 들이닥쳐 살살이 살피고 감. 火峴을 지났으며, 교예가 챙기던 이증구의 짐의 일부를 빼앗김. 柳橋店에서 묵었음.	
1894.8.1	아침 전날의 東匪 후군들이 몰려와서 이증구 일행의 물건을 빼앗아감. 죽령을 지나서 鑰店에 이르렀음. 숙박할 곳을 알아보았는데 매우 누추하였으며, 고향에 언제쯤 이를지를 한탄함.	

일기를 통해 이증구가 고향으로 가는 8일의 여정을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증구는 7월 9일 부교리, 14일 서학교수에 제수 되었다. 그러나 이증구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 삼아 새로이 관리를 임명해줄 것을 청했고, 고종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이증구는 한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이증구가 한성을 떠나기 전, 7월 24일 아직 관내에는 왜병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25일 고종의 탄일에는 적은 수의 관리들이 참석하였다.

이증구는 조정의 적막함을 탄식하며 한성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이후 이증구는 한성을 떠나 용인, 광주(곤지원), 충주, 괴산[火峴], 죽령(竹嶺)을 거쳐 고향인 경주로 향하였다. 이증구는 여정 중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특히 29일 충주를 지난 후로는 동비(東匪, 동학교도)³¹⁾들을 만나서 곤욕을 치렀다. 7월에는 이미 충청도 전역이 사실상 기포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으로,³²⁾ 이증구가 충주에 들어선 후로는 농민군과의 접촉이 지속되었다.

7월 30일과 8월 1일 이증구는 고향으로 향하는 중 몇 차례 동학군을 마주쳤으며, 이 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7월 30일 이증구는 여정 중 동비들이 못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두려워하였다. 또한 이미 몇 관리들은 도망을 가거나 집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염려하였다. 그를 수행하던 교예(轎隸)가 배고프다 하여 숙소에서 머물며 식사를 기다리는 중 비류(匪類) 수십 명이 들이닥쳐 처소를 살살이 살피자 이증구와 행인들은 겁을 먹었다. 또한 주인 노파로부터 그들이 이교리라는 자를 찾고자 온 이야기를 전

31) 유교지식인들은 동학을 邪學·邪說·異端·妖道, 그리고 그 무리를 東匪·敵徒·匪徒·邪徒·叛賊·火賊·盜賊등으로 규정하여 불렀다(김상기, 2014, 『유교지식인의 東學 인식과 대응』, 『역사연구』 27, 86쪽).

32) 충북연구원,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연구』, 16쪽.

해들었다. 이중구 일행은 다시 일정을 재촉하여 가는 중 마주친 행인과 의 이야기를 통해 비류가 성을 빼앗아 마을 내 정판서 집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사면에서 포교하며 사대부 집의 침구[褥], 방석(方席), 전립(戰笠) 등의 물건을 가져갔음을 전해 들었다. 이중구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사대부가 비록 작은 과실이 있을지나 저 무뢰배들이 어찌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탄식하였다.

일행은 화현(火峴)을 지났고 교예가 배고프다 하여 한 가게에 들러 잠시 쉬어갔다. 이중구는 교예에게 마저 쉬었다가 천천히 오라 전하고 먼저 길을 나섰다. 그런데 교예가 얼마 되지 않아 뒤쫓아 와서 방석과 유금(油衿)을 비류에게서 뺏겼다고 하였다. 마침 이중구 일행에게 여러 명의 무리가 와서 겁을 주었으나 다행히 물러나 다시 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한 차례 더 비류를 만나는 일을 겪었다. 이중구는 이날 일을 겪고 수명이 짧아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8월 1일은 이 일기의 마지막 날이나 이중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날 동이 틀 무렵 이중구는 문밖에 함성을 들었고, 아침 식사 후 출발하려는 찰나에 수십 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전립과 입모(笠帽) 등의 물건들을 달라고 하였다. 그 무리는 전날의 후발대로 보였는데 이중구의 물건을 살펴보고 전립 등을 챙겼다. 이중구 일행은 여정의 속도를 내었고 죽령(竹嶺)을 지났다. 비가 많이 왔으며 이중구는 목을 방 하나를 빌렸는데, 방은 마치 죄인을 가두는 곳같이 열악했으며 내어온 식사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날 밤, 비가 요란히 내리고 우레가 쳤는데 이중구는 고향이 아늑한 곳에 있어 어느 날에 이를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이중구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일본군을 보았고, 동학농민군들을 마주쳤으며 물건을 빼앗기는 수난을 겪었다. 이중구는 한성을 출발하여 용인과 광주를 지나 충주, 괴산, 단양 지역을 경유하여 고향으로 향하였는데, 충주, 괴산, 단양 일대는 농민군들은 1894년 외국 군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고 위기감을 느꼈고,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만큼 이중구는 해당 지역을 지나며 다양한 일을 겪었고

이를 일기에 기록했다.³³⁾

아쉬운 점은 이증구의 일기는 8월 1일까지만 남겨있어, 그 이후 고향으로 향하는 이증구의 이후 여정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증구는 이후 자운산방(紫雲山房)을 지어 학문에 정진하였다.³⁴⁾ 그리고 비록 이증구가 한성을 떠나 고향에 머물렀지만, 연이어 급변하는 국가의 형세 속 그가 처한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갔다.³⁵⁾

이증구가 남긴 8일의 일기는 당시 중앙의 관료가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 중 직접 겪은 당시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라는 두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당대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일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이동 경로, 여정 중 지나친 지역에서의 상황 등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중요한 점은 여정의 현장을 직접 남긴 자료로써, 당시의 지방사회의 모습과 현장에서의 이증구의 감정을 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맺음말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유학 지식인인 자운 이증구가 받은 편지, 그가

33) 충청지역 중 충주·괴산·단양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은 충청북도,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연구』, 179~184쪽 참고.

3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109(1898년 9월 상순에 쓴 權相文의 李中久의 紫雲山房 記文). “...理直弘文館, 值青馬之亂, 無意於仕進, 退卜于此, 以紫雲顏其室, 案紫陽書若, 晦齋先生集數秩, 耽蹟研究, 爲終老計...”

35) 김우진,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2024 참고.

모은 정보, 그리고 직접 남긴 일기를 소개하고, 이증구의 시선으로 그가 마주하였을 ‘동학농민혁명’의 시기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1893년 동학의 움직임이 시작되던 시점, 관직을 맡아 한성에서 체류 중이던 이증구는 동학교도들의 포고문을 인식하였고 이를 비난하는 취지의 상소에 관심을 보였다. 이즈음 지방에 있는 그의 친족들은 편지를 보내 이증구의 안부와 동학에 대한 소식을 되물으며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길 바랐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그 영향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정이 청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은 군사를 파병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며 조선 내부의 개혁을 압박했다. 이 시기 이증구는 동학과 대외 형세와 관련된 상소를 모으고, 조정의 직제 변경과 관원 임명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특히 외국 공·영사간의 회동 초고와 일본 공사 오토리 다이스케의 상주문과 관련한 기록은 당시 이증구가 조선을 둘러싼 외국의 간섭과 정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증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관직을 내려두길 결심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여정 중 동학농민군을 직접 맞닥뜨리며 겪은 8일의 경험은 일기에 상세히 그려졌다. 이증구는 한성을 나서는 초입에서 왜병을 보았고, 편치 않은 마음으로 남쪽으로 향하였다. 또한 이동 중 만난 동학농민군들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등 고향으로 향하는 노정은 쉽지 않았다. 일기에서 이증구가 고향에 언제 도착하였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증구는 힘든 여정 끝 고향에 잘 도착하여 학문에 정진하였다.³⁶⁾

이증구가 혼란한 정사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하였지만, 그가 한성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경험은 이후 이증구의 활동과 행적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이증구는 당시 동학농민군뿐만 아니라 일본의 내정 간섭과

36) 고향으로 돌아온 이증구는 紫雲山房을 지어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경복궁 점령 등을 목격했다. 이후 이어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간섭과 침략 속 이증구는 반일 의식을 형성해갔는데, 1894년 그가 겪은 경험이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증구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그가 점차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³⁷⁾ 이증구는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하여 경주향교 단연(斷煙)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의병과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증구의 행보와 의지는 연령·가문·지역을 초월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자운계(紫雲契)’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기억되었다. 이증구는 그가 처한 위치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시기에 이증구를 중심으로 수집·생산된 자료 일부를 소개하고, 그 기록의 시선을 따라 당시의 모습을 관찰해보았다. 아쉬운 점은 이증구가 받은 편지, 이증구가 쓴 일기, 이증구가 필사하거나 모은 정보들이 주를 이루어 그의 현실 인식과 그 대응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중 이증구와 해당 시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이 고문서 내 여러 자료의 소개에 국한되어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활동과 이동, 관련 자료와의 비교 및 검토 등이 부족하여 깊이있는 분석과 역사적 해석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속의 여러 자료들을 발굴하고, 자운 이증구 개인 연구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꾸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투고일 : 2025. 4. 7.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4. 28.

37) 김우진, 2024,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 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참고.

참고문헌

<사료>

『高宗實錄』

『李中久家五代古文書』

『續陰晴史』

『承政院日記』

<단행본>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1·2, 다운샘.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신용하, 2016, 『(신판)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충북연구원,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연구』, 충청북도.

<논문>

권대웅, 2009, 「경상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72~107쪽.

김상기, 2009, 「충남지역 유교지식인의 동학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43~71쪽.

_____, 2014, 「유교지식인의 東學 인식과 대응」, 『역사연구』 27호, 역사학연구소, 85~100쪽.

김우진, 2024,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69~93쪽.

박맹수, 2009,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08~138쪽.

배향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韓國史研究』 201, 한국사연구회, 215~251쪽.

송진현, 2023, 「19세기 후반 경상도 상주의 향촌문제와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제150집, 대구사학회, 103~141쪽.

신영우, 2015, 「충청감사와 갑오년의 충청도 상황」, 『동학학보』 34, 동학학회, 189~240쪽.

이광우, 2018,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제68집,

57~94쪽.

이병규, 2015,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35호, 동학학회, 171~202쪽.

이재령, 2021, 「慶州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의 정리와 성과」,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15~140쪽.

〈부록〉

이중구가 쓴 8일 간의 일기(원문, 번역문, 사진자료)
(1894년 7월 24일~8월 1일, K476)

甲午七月二十四日，陰。午後，進別雲峴李輔國，略有所達。關內倭兵始退，只留關門外派守軍數名，或從此就平耶。

갑오년(1894년) 7월 24일, 흐림. 점심을 먹은 후 운현궁에 가서 이 보국(李輔國)을 찾아가 작별하면서 간단히 말한 바가 있었다. 쫓겨내에는 왜병이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다만 쫓겨나지 않은 바 파수꾼 수명만 남아 있으니, 혹 이로부터 평탄해질 것인가.

二十五日，晴。誕辰公故參班，不過五十員，朝著何若是蕭索耶。不覺痛歎。午後，進別雲峴統衛使，略有所言，猥荷隆遇，極切悚然。歸視主人，爲供行饈，對爐汗滴，人情似然。

25일, 맑음. 임금의 탄신 공고(公故)가 있어 참석한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으니, 조정이 어찌하여 이처럼 적막한가. 나도 모르게 탄식하였다.

오후에 운현궁에 통위사를 찾아가 작별하고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외람되이 융성한 대우를 받아서 죄송함이 매우 컸다. (집으로) 돌아와 주인을 보니 (나의) 행선(行饈)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로를 마주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으니 사람의 정이 이와 같다.

二十六日，晴。飯後發行。五歲旅愴，雖極爽豁，客地相依之如丁佐郎而直，李監察元五，金士英，權穆如，金景由，許喜諸兄，隨後出街路，送別去留之悵，前路茫然。

因歷別鄭令天弼，巧以生隸之任卜相失。不遑作別。南邨數處，意或迫而可

得踵. 至江頭守倭兵派之, 點檢轎內. 舟子之停船索價, 已非昔日光景, 雖得後咲, 當日情景, 可勝言哉. 僅行二十里, 投宿末竹店.

26일, 맑음. 식사 후 출발하였다. 5년의 객지 생활이 마무리되어 비록 (마음) 매우 시원하였으나, 객지에서 서로 의지하였던 좌랑 정이직, 감찰 이원오, 김사영, 권목여(권상문), 김경유(金景由), 허희(許喜) 등의 형들이 뒤따라 길로 나오니 헤어지는 아쉬움에 앞길이 아득하다.

연이어 정천필 령(令)을 작별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생애가 맡은 짐을 잃어버려 서로 헤어지니 작별할 경황이 없었다. 남쪽 몇몇 곳에서 생각건데 아마도 뒤쫓아 이를 수 있었것이다. 강두(江頭)에 다다르니 지키는 왜병을 파견하여 가마 안을 점검하였다. 뱃사공이 배를 멈춰서 뱃값을 요구하니 이미 예전에 광경이 아니었고, 비록 훗날 웃었으나 당일의 모습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겨우 20리를 가서 말죽점(末竹店)에서 묵었다.

二十七日, 晴. 早發, 過新院店. 路上裁書, 付喜啓兄, 略敘行邁間關之意. 因朝飭於月峴店, 中火於龍仁邑, 投宿於別味店. 是日行一百十里. 夕後招大邱鎮營使令, 付韓進士書.

27일, 맑음. 이른 아침 출발하여 신원점을 지났다. 길 위에서 글을 써서 희계 형에게 보내면서 길을 가는 중간에 난관이 있는 뜻을 대략 서술하였다. (편지를 쓴 다음) 이로 인하여 월현점에서 아침을 먹고 용인읍에서 점심을 먹고 별미점(別味店)에서 묵었다. 이날 110리를 갔다. 저녁 후에 대구진영의 사령을 불러 한 진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二十八日, 微雨. 移京已數日, 青石關開場梗概, 無由得聞. 身雖南歸, 心切北懸. 歷覽所過, 山卉野種, 露濕雨潤, 無此疆彼界. 風光物色, 依舊是我國, 而彼日下風塵, 何時妥定. 言之及此, 不覺痛歎.

28일, 비가 조금 음. 한성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청석관³⁸이 개장(開場)한 소식을 전해 들을 방법이 없다. 몸은 비록 남쪽으로 가나, 마음은 절실히 북쪽에 남아있다. 지나가는 길에 보니 산에 난 풀이나

들판의 꽃이 이슬에 젖고 비에 젖어 이쪽과 저쪽의 경계가 없다. 풍광과 물색은 여전히 우리나라인데 저 태양 아래의 풍진은 어느 때에 안정될까. 말이 여기에 미치자 나도 모르게 통탄하였다.

早發，至裴甘店朝飭。將發，金校理弼賢，自忠州本家，才到此地相遇，豈是所料。因攜手入店，敘懷半餉而別，徒亂遠去者心曲。行到碑立店，中火，以輜隸迭相告頌，不得躋程。僅行八十里，暮抵昆池院。百骸如碎，似不更起。招主人，問閔判書梗概，則云已移去他處，似是變亂後避身之計。一場富貴，已付春夢，回念往昔，不覺悽然。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배감점(裴甘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출발하려 할 때 교리 김필현이 충주 본가에서 막 이곳에 도착하여 서로 만나니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손을 마주 잡고 배감점으로 들어가 잠시 동안 소회를 말하고 헤어지니 (동학의) 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었다. 일행이 비립점(碑立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으니, 가마꾼들이 번갈아 탈이 났다고 하여 가는 길을 재촉하지 못했다. 겨우 80리를 가자 날이 저물어 곤지원에 이르렀다. 온몸이 부서질 듯하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주인을 불러 민 판서의 소식을 묻자 이미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니, 변란 후에 피신하는 계책인 듯하다. 일장의 부귀가 이미 춘몽이 되고, 과거의 광경을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슬퍼졌다.

二十九日，晴。輜隸不健，未得晨發，飭後登程。中火於龍院，將向忠州，中路被雨，入棗院。適逢遞結城李紹榮來自醴泉，坐肆待晴。因下輜入肆，略敘間別。方謀聯宿，定館後，未及相會，天雨忽霽，以書告別，吾亦修答，以謝惠五緡之意。促輜登途，僅行九十里。暮抵府中，時經倭亂，學府奔竄，都無

38) 靑石關: 개성부에 위치한 곳으로 돌로 축성한 성이다. (『輿載撮要』卷3, 「京畿道·開城府」.)

投宿處。自西南門周回，至北門，只有馬房一店，而亦不肯納。因下轎強入，主人見雨勢大作，方許寄宿。房突陋穢，終宵未成眠，令人難堪。

29일. 맑음. 가마꾼이 몸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출발하지 못하고 식사 후에 일정을 시작하였다. 용원(龍院)에서 점심을 먹고 충주를 향해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 조원(棗院)에 들어갔다. 마침 교체된 결성현감(結城縣監) 이소영(李紹榮)이 예천에서부터 오다가 사(肆)에 앉아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을 만났다. 이에 가마에서 내려서 사에 들어가 그동안의 소식을 대략 말하였다. 이어 목을 생각으로 숙소를 정한 후에 서로 만나지 못했을 때, 비가 갑자기 그쳐서 글을 써서 이별을 고하니 나도 답서를 써서 다섯 꺾미를 보내준 뜻에 감사하였다. 급하게 가마를 타고 길에 나서서 겨우 90리를 갔다. 저녁에 충주부에 이르니 때마침 왜란을 겪어 충주부 전체가 달아나 머물 곳이 전혀 없었다. 서남문으로부터 돌아서 북문에 이르니 마방(馬房)이 있는 숙소가 하나 있는데 역시 받아 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가마에서 내려서 역지로 들어가니 주인이 빗줄기가 큰 것을 보고서야 머물 곳을 허락하였다. 방안이 누추하여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하였다.

三十日，晴。飭後發行，才才前進，東匪作梗，途路傳聞，極爲懷怖。如權洗馬·鄭直閣·李校理者，或逃避，或周牢，或奪家，當者情境，口不可道。前頭經歷，尤極係慮，而路由竹嶺，則回避不得，所以細探。

30일, 맑음. 밥을 먹은 후 길을 떠나 겨우 앞으로 나가다가 동비(東匪)가 소란을 일으켰음을 길에서 전해 들으니 매우 두려웠다. 권 세마(洗馬), 정 직각(直閣), 이 교리(校理)와 같은 사람은 혹자는 도망을 가기도 하고 혹자는 주리를 틀기도 하며 혹자는 집을 빼앗기기도 하였으니 당한 사람의 정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더 염려되나 길이 죽령을 경유하여 회피할 수 없으니 자세히 탐문하였다.

至西倉，輜隸告飢，入店。中火，未及對鉢，喊聲大起，匪類數十人，奔騰驟至，指顧蒼黃，爲搜覓捕捉狀。行者喫悒，尤難定情。若視恆悒，慮有他變，強作多氣而探問。則主婆云，李校理曾以武斷事，東匪方謀雪冤毆打，見機先避。堂有大夫人，日前以指所去處，恐喝無狀，老夫人受無限困境，以一婢子，依典當例出給，以姑俟外主來時之意，百般開諭，以受寬限。今適此家奴子，方午飯在家，若捕而招辭，則可知其去處，故匪類以捉此家奴丁事，如是紛拏。顧知行人，本無相關，而當場危怖，可勝言哉。

서창(西倉)에 이르자 가마꾼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가게에 들어갔다. 점심때가 되어 아직 식사를 먹기도 전에 함성이 크게 나며 비류 수십인이 날뛰면서 물려와 신속하게 살살이 뒤져 붙잡으려는 상황이었다. 행인들은 겁을 먹어 마음을 안정시키기가 더욱 어려웠다. 만약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다른 변고가 생길까 염려하여 억지로 담대하게 행동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주인 노파가 말하기를, 이교리가 일찍이 무력으로 일을 처리하여 동비(東匪)들이 억울함을 씻고(그를) 구타하려 하였는데(이교리가) 그 기미를 보아 먼저 피하였다고 한다. 당에 대부인이 있어 며칠 전에 간 곳을 가리키자 함부로 공갈을 하여 늙은 부인이 끝없는 곤경에 처하니 계집 중 하나를 인질로 내어주고, 우선 바깥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자는 뜻으로(그들을) 백방으로 설득하여 기한을 연장받았다.(그런데) 지금 마침 이 집의 하인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으니 그를 잡아다 진술을 받으면 그가 간 곳을 알 수 있으므로 비류들이 이 하인을 잡는 일로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행인들은 본래 서로 관련된 것이 없음을 알았으나 당시 현장의 위험과 공포를 다 말할 수 있으랴.

末乃失捕，亂入店肆，問擔負之從何而來。下隸答以“自京來”，則渠云，“裏有何物”。下隸又答“無他好物，只有敝衣數件而已。”渠咲曰，“雖有寶物，吾非奪取之人，須勿驚動好去。”較諸初頭光景，猶爲差強。因促隸登程，或三四人，或二三人，偶坐沙場，連絡途路。

끝내 (하인을) 붙잡지 못하고 (비류들이) 점사(店肆)로 난입하여 짚어
진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다. 가마꾼이 “한성에서 왔다”고 대
답하자, 그들은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고 하였다. 하인이 또 대
답하기를 “다른 귀중한 물건은 없고 그저 낡은 옷 몇 벌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비록 보물이 있어도 우리는 빼앗는
사람이 아니니 놀라지 말고 떠나라”고 하였다. 처음의 광경과 비교하면
조금 나빠졌다. 그 때문에 가마꾼을 재촉하여 길에 오르니 혹 서너 사
람, 혹 두세 사람이 모래사장에 짚지어 앉아 도로에 연이어져 있었다.

行未十里，見人家，產物數十負，連亘路上，後有三輻子，蒼黃出來，一輻
子輻二處子一老人，新嫁婦女六七人，以短裳草履，持圓箆，携短筇顛倒。隨
輻後來，見吾行，一齊避立。怪問行人，則答云，“匪類奪城內洞鄭判書家，設
都所，四面發捕，收近地士夫家步褥·方席·鬘子·戰笠等物。至若平日武斷鄉
曲者，一並捉治，故城內洞內行，避逐奔去。而此去內行及產負，皆出於其家
也。”噫噫。此何光景，此何氣數。士夫家雖有小失，彼無賴輩，安敢如是乎。

길을 간지 십 리가 되지 않아 인가를 만나니, 물건 수십 짐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고, 뒤에는 세 개의 가마가 있어 황급히 나오는데 각 가
마에 두 처자와 한 노인을 실었고, 시집가는 집의 부녀(婦女) 6-7명이
짧은 치마에 짚신을 신고 등근 부채를 가지고 짧은 지팡이를 거꾸로 쥐
고 있었다. 가마의 뒤를 따라오다가 우리 일행을 보고는 일제히 길을
비켜섰다. 괴이하여 행인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비류가 성
내동의 정판서 집을 빼앗아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사면으로 포교(捕校)
를 보내어 근처에 있는 사대부 집의 침구, 방석, 엽자(鬘子), 전립 등의
물건을 거두어들이고, 평소에 향곡에서 횡포를 부린 사람을 모두 붙잡
으므로, 성내동의 부녀자들이 피하여 달아났다. 여기에 가는 부녀자와
물건들은 모두 그 집에서 나왔다.” 슬프도다. 이것이 무슨 광경이고, 이
것이 무슨 기수(氣數)인가. 사대부 집이 비록 작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저 무뢰배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因下輜彷徨，將用過宋之計，細探前路，則丹陽去路，非由城內洞，故稍釋危疑。問關踰烽火峴，逢李上舍晚茂，略敘間別。因促行，至烏旄幕，輜隸告飢，下輜入肆。少憩將發，輜隸息肩，命隨後來，持茶具，先發行。未數步，輜隸來告，方席油衿，見奪於匪類。大抵行客，於渠有何相關，而逢此厄會乎。

이로 인해 가마에서 내려 배회하다가 송나라를 지나가는 계책을 쓰려고, 39) 앞길을 자세히 탐색하니 단양으로 가는 길은 성내동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위태롭다는 의심이 조금 풀렸다. 중간에 봉화현을 넘어가다가 상사(上舍) 이만무(李晚茂)를 만나 중간의 소식을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길을 재촉하였다. 조모막에 이르니 가마꾼이 배고프다고 하여 가마에서 내려 가게에 들어갔다. 조금 쉬었다가 출발하려 할 때 가마꾼은 어깨를 쉬었다가 뒤따라오게 하고, 차 도구를 들고 먼저 길을 나섰다.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가마꾼이 와서 알리기를 방석과 유금(油衿)을 비류에게 빼앗겼다고 하였다. 대체 지나가는 행인이 그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불행 만나는가?

停輜路上，帶二隸，直上所憩店。問其所由，則稱以收兵器於丹陽邑，將用日後軍中，而此其歸路也。雖行人之橐，若繫於所用，安用不所取以代錢之意。齊聲恐喝曰，“以火黨目吾輩耶。卽爲逐出可也”。衆起執手曳出，吾堅立咲言曰，“君輩以義爲名，而既奪吾物，從以傷之，可乎”。因少却，而氣焰稍降。觀其動靜，万難還覓。不顧後出門，有一人目之曰，“少俟則似有覓去之理”。故爲逗遛，終無變動，因登輜發行，日已曛矣。僅行八十五里，至柳橋店投宿，發自烏旄幕，路上又逢匪類，其睨視輜內之狀，令人促壽。

길에서 가마를 멈추고, 두 하인을 데리고 쉬었던 가게로 바로 올라갔다. 그 연유를 물으니, 장차 군중에서 쓰려고 단양읍에서 병기를 거두어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비록 행인의 짐이라도 긴요하게 쓸 것이

39) 공자가 송(宋)나라를 지나가려 하자 사마환퇴(司馬桓魋)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려 하므로, '변복을 하고 송나라 땅을 지나갔다.[微服而過宋]'라는 고사이다.

있으면 어찌 취해서 돈으로 바꾸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 여러 사람이 위협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화당(火黨)으로 보는가? 즉시 쫓아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무리가 일어나 손을 잡아 끌어내니, 내가 굳건히 서서 웃으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의(義)를 명분으로 하면서 이미 내 물건을 빼앗고 나를 해치려 하니 옳은 일인가?” 그러자 조금 물러나 (그들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살펴보니 물건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니 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말하기를 “조금 기다리면 되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으나 끝내 변동이 없기에 가마에 올라 길을 나서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겨우 85리를 가서 유교점(柳橋店)에 이르러 묵었다.

조모막(鳥旆幕)에서 출발하여 길 위에서 또 비류를 만났는데 (그들이) 가마 안의 상황을 흘려보니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게 한다.

八月初一日，晴。昧爽，門外喊聲又起。方督明火於店人，蓋前日後軍自丹陽邑來也。餘後將發，數十人突入，以怒目責出戰笠·笠帽及諸般行具。日日逢厄，何其甚哉。促隸出轎內已件，姑未給奪，戰笠·笠帽及革鞋一件。一過飜負，探索他件，以前日方席油衿見奪之無細及之，則以假托不信。因披示轎內，以回敵心。

8월 초1일, 맑음. 동이 틀 무렵에 문밖에서 함성이 또 일어났다. 막 주인에게 불을 밝히라고 독촉하니, 전날의 후군이 단양읍에서 온 것이다. 밥을 먹은 후 출발하려 하니, 수십 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성난 눈으로 전립(戰笠), 입모(笠帽)와 여러 행구(行具)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날마다 곤역을 당하는 것이 어찌 이처럼 심한가. 하인을 재촉하여 가마 안의 물건을 내주게 하였는데, 처음에 빼앗기지 않았던 전립과 입모 그리고 가죽신 한 켤레였다. 한 차례 물건을 뒤희고 다른 물건을 찾았는데 전날에 방석과 유금을 빼앗아가서 하찮은 것도 없다고 하니 거짓이라며 믿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가마 안을 열어 보여서 적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一漢以草匣視油衿，喝取視之非也，因憮然曰，“草可食，半取而去”。一汗奪去佩草匣，傍有一汗，學義責之曰，“戰笠等物，有用處而收之，彼行人草匣，取之何用。斯速給之。”因投之曰，“持去”。誠切呵呵。彼賊黨無道，有何所擇，或取或不取乎。有人率內行，投宿於越房，見其促裝將發。邀客者，前日圓洞熟面也。敘話畢，登程，向丹陽邑。

한 사내가 초갑을 유금으로 보고 소리치며 가져갔다가 살펴보니 아니었다. 허탈해하며 말하기를 “풀은 먹을 수 있으니 절반만 가져가자”고 하였다. 한 사내가 초갑을 뺏어서 허리에 차니, 옆에 있던 한 사내가 의리를 들어 “전립 등의 물건은 쓸 곳이 있어서 거두지만 저 행인의 초갑을 가져가서 무엇에 쓰겠는가? 속히 돌려주어라.”라고 책망하였다. 그러자 초갑을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참으로 매우 우스웠다. 저 도적 무리는 무도한데 무엇을 가려서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가져가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부인을 데리고 건넌방에 묵었는데 이를 보고 행장을 서둘러 꾸리는 것을 보니 장차 출발할 것 같았다. (그) 손님을 불러보니 전날 원동에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었다. 몇 마디 대화를 마치고 길에 올라 단양읍을 향해 갔다.

至衙門外，陰雲發墨，雨勢不佳，停輜彷徨。吏胥輩，見率隸蓬頭無着，環立怪問。招致來前，問吳參判安否，則前日遭盆憾，方在床褥中。誼當入診，而歸事甚迫，含意未遂。適逢慶州輜軍之住忠邑者，以忠牧生日進封，來丹陽邑忠牧妾家，與率隸會同閑者。說及中路逢厄之由，以八錢買得所着戰笠。此非同鄉下人，豈能容易。甚奇特也。前路所聞，尤爲關心。

(단양) 아문 밖에 이르자 먹구름이 짙어지고 비 오는 형세가 좋지 않으니 가마를 멈추고 방황하였다. 관아의 아전들이 데려온 하인들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제대로 입지 못한 것을 보고, 둘러서서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오 참판의 안부를 물으니, 전날 부인을 잃어 지금은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하였다.⁴⁰⁾ 마땅히 들어가 살펴보아야 하나 (경주로) 돌아가는 일이 매우 급박하여 생각대로 하지 못하였다. 마침

경주의 가마꾼으로 충주읍에 머물던 자를 만났는데, 충주 목사의 생일에 선물을 바치는 일로 단양읍에 있는 충주 목사 첩의 집에 왔다가 솔레들과 함께 거주한 자이다. 길에서 곤액을 만난 사유를 말하고, 8전으로 (그의) 전립을 샀다. 이는 고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매우 기특(奇特)한 일이었다. 길에서 들은 소식에 더욱 궁금해졌다.

冒雨促輶，而發見行路兢兢，亦爲戰膽。踰竹嶺，入鑰店。此去丁兄家，不過二十里云，視爲吾家，而恨不奮飛。中火將發，雨勢大作，傳聞極怖。衣沾不足惜，而積日載路，慮或生祟。分付主人借一房，深奧如囹圄，所進夕飭，喫數匙而退。挑燈頽臥，雨脚翻盆，○響如雷，旅燈明滅。枕席昏倒，默念歸事，家鄉如在天涯，未知何日入抵也。是日僅行四十五里。

비를 무릅쓰고 가마를 재촉하여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또한 두려움에 떨었다. 죽령(竹嶺)을 넘어 유점(鑰店)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정형(丁兄)의 집은 20리에 불과하다고 하니, 우리 집처럼 보였으나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밥을 먹고 장차 출발하려는데 비가 거세게 내리고 들리는 소문도 매우 두려웠다. 옷이 젖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여러 날 길 위에서 있으니 혹시나 있을 재난을 걱정하였다. 주인에게 부탁하여 방 하나를 빌렸는데 깊숙하기가 감옥과 같았으며, 들어온 저녁 밥을 몇 손가락 뜨고는 물렸다. 등불을 켜고 자리에 누우니 비가 세차게 내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여관의 등불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이부자리에 쓰러져 누워 돌아갈 일을 묵묵히 생각하니 고향은 아득한 곳에 있는 듯 하여 어느 날에 돌아가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날 겨우 45리를 갔다.

40) 三遭盆憾：고분(叩盆)의 슬픔을 세 번이나 만났다. 장자(莊子)의 아내가 죽었을 때 혜자(惠子)가 조문을 가서 보니, 장자가 바야흐로 두 다리를 뺀치고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상처(喪妻)한 것을 말한다.

<Abstrac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東學農民革命)
through the Eyes of Jaun (紫雲) Lee Jung-gu (李中久)
- Focusing on the Historical Manuscripts in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五代古文書) -

Kim, Hyun-Sun*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selection of historical manuscripts collected and preserved by Jaun Lee Jung-gu (紫雲 李中久) during the period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found in the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housed in the Toegye Memorial Library of Dankook University.

Jaun Lee Jung-gu was a member of the Gyeongju branch of the Yeosu Lee clan (驪州 李氏 慶州派), and his twelfth-generation ancestor was Hoejae Lee Eon-jeok (晦齋 李彦迪, 1491-1553), one of the "Eighteen Sages of the East." While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Lee Jung-gu witnessed the movement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military interventions of Qing and Japanese forces in Joseon, and the sweeping changes taking place at the center of power. Eventually, he withdrew from officialdom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The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includes various sources from this letter(ganchal, 簡札), transcriptions (saebon, 寫本) of central government documents, and a travel diary (ilgi,

* Ph.D. Candidate, Dankook University

日記) — which allow us to examine this turbulent time from Lee Jung-gu's perspective.

The correspondences reveal that Lee's relatives and acquaintances exchanged greetings while sharing inquiries and news about the status of the Donghak move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transcribed documents show the issues Lee Jung-gu, then still in government service, was interested in. Finally, his travel diary records the eight-day journey back to his hometown and vividly conveys his reflections and emotions during that time.

On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aterials is that most of them consist of letters received by Lee Jung-gu, his own diary, and information he transcribed or collected,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ully grasp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how he responded to it. Therefore, further examination of related documents within the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is needed to supplement this aspect.

Key word : Jaun Lee Jung-gu (紫雲 李中久),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Donghak Peasant Revolution (東學農民革命), Sino-Japanese War (清日戰爭)